

‘與 前대’ 유세·여론전... 막바지 표심 공략으로 지지층 영끌

김기현, 전통적 보수 기반 경북 방문
안철수, 포항·창원 찾아 지지 호소
천하람·황교안, 인터뷰·기자회견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일, 주요 당권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당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을 순회하며 막판 유세에 집중했다. 천하람·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전에 나섰다.

김기현 후보는 1일 경북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104회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과 만남을 이어갔다.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김 후보는 영주·상주에서 당원들과 만남도 가졌다. 국민의힘 전통적 보수 지지 기반인 경북에서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연이은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공세에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서 지지층 이탈을 막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



김기현(왼쪽부터),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세차익 의혹이 나온 토지 원소유주 차명 부동산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토지 원소유주) A씨가 대량으로 토지를 샀는지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분 경제 관계를 검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저는 그분 땅을 산 것밖에 없다.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는) 가짜뉴스를 마구 퍼 나르는 사람들은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 간 연대 행보에 ‘공갈 연대’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훌륭한 선수는 남을 뒤에서 꼬집어 당기지 않는다. 자신의 실력으로 경주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3일) 수도권 연설에서는 우리 당이 하나로 통합돼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는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이 과연 진심으로 이기기를 바라서 연대를 했는가.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연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후보가) 계속 팔고 있다”며 “일종의 공갈 연대라는 말도 쓴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당원과 만남을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별 당원과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지지 호소에 나선 것이다.

포항 책임당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김 후보는) 가수 또는 운동선수와 문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연대 지지 명단이 엉터리인 것도 밝혀졌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럴까

생각한다”며 재차 김 후보의 연대 행보를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뽑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내년에 수도권에서 한 사람의 후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당 대표 감이 누구인지 자명하다”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도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하루 앞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천하람과 김기현의 결선을 200% 확신한다. 안 후보가 제게 레드카펫을 깔아줄 것”이라며 자신이 당 대표 경선 결선투표까지 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금 체계 부족한 건 어찌 보면 대선주자급 인지도와 중랑감인데 이걸 제가 안 후보를 꺾는 순간 다 해결된다”고 전망했다.

황교안 후보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결선에서 판을 뒤집는 전략은) 결국 당심”이라며 “당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대기 정치를 하는 당 대표를 뽑을 건가, 냉철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李 사법리스크 그림자에 ‘쌍특검 추진’ 촉각

체포동의안 내부 이탈표 최소 31표
쌍특검법, 非이재명계 지분 커져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충격과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 이른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내부 이탈표가 최소 31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비(非)이재명계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드러났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가 쌍특검안 처리까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정부투쟁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일단, 민주당은 쌍특검에 국민의힘

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우회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회동을 갖고 쌍특검 추진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확인했다. 이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는 입장이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 관련)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50억 클럽 자체로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원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같은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하려 얼마나 노력을 했다. 기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특검하자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몰타기다. 집요한 스토킹으로 흥질내기하는 것”이라며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수사가 부족하면 그런 요구가 커질 것이라 본다.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쌍특검 추진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쌍특검 추진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기미독립선언의 정신 계승해 자유·평화·번영 미래 만들자”

尹,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복합 위협을 비롯한 엄중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는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칙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진 선열들을 반

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복합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여야 “순국선열 희생·헌신 기억” 한목소리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3·1절에도 멈추지 않았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복속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헌법 정신 근간이 됐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숭고히 계승해 나가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조국의 독립을 되찾고자 했던 순국선열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온 마음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을 다해 기린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온 국민이 들었던 촛불도 3·1운동의 연장선이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